

최태원, 엔비디아 젠슨 황 만났다…"혁신의 순간"

등록 2024.04.25 16:49:41 | 수정 2024.04.25 17:52:51



[서울=뉴시스]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(현지 시각)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(CEO)와 만나 인공지능(AI)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했다.(사진=최태원 회장 인스타그램 캡처) photo@newsis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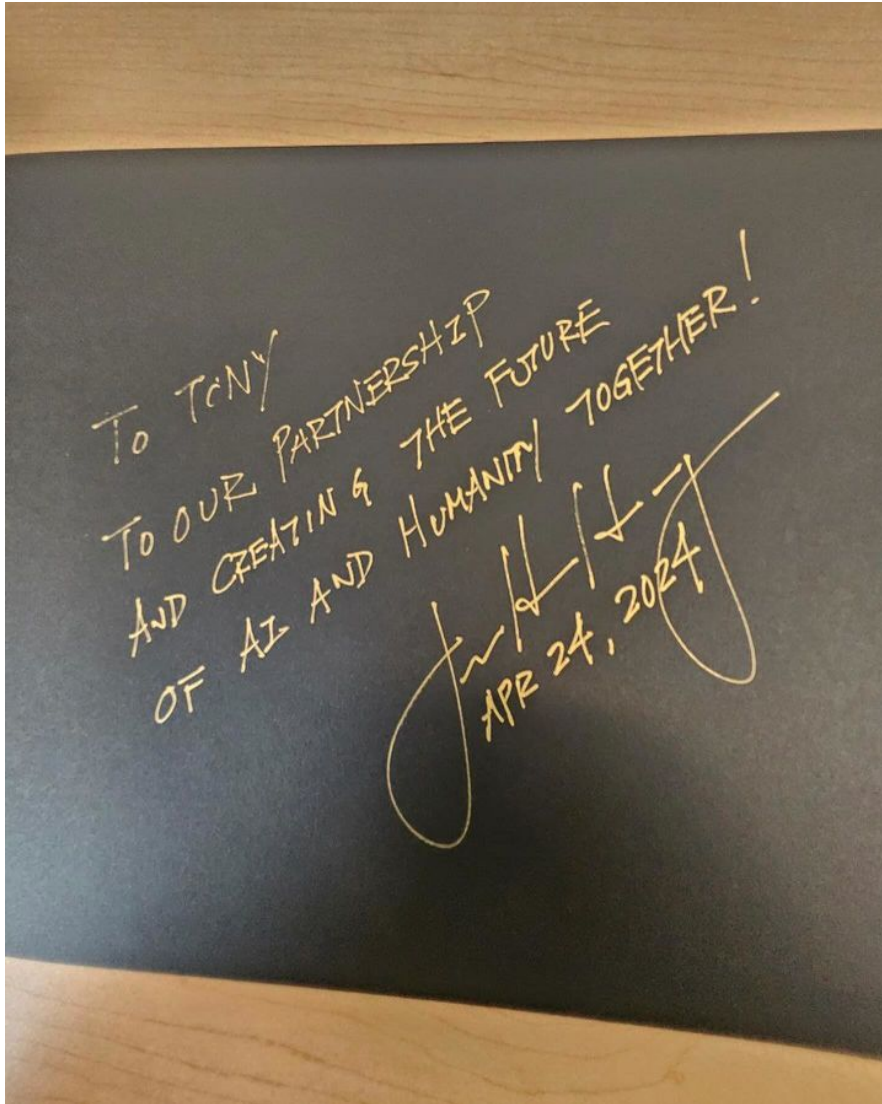
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이인준 기자 =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(현지 시각)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(CEO)와 만나 인공지능(AI)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했다.

최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젠슨 황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. 그는 사진과 함께 "혁신의 순간을 포착할 때는 카메라 각도가 중요하다"고 밝혔다.

젠슨 황 CEO는 최 회장에게 선물한 책자에 "우리의 파트너십으로 AI와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"며 자신의 사인을 남겼다.

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짧은 일정으로 실리콘밸리를 찾아 젠슨 황 CEO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.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AI 반도체용 메모리인 HBM(고대역폭메모리)를 납품 중이다. 두 사람은 이번에 HBM 등 AI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.



[서울=뉴시스]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(현지 시각)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(CEO)와 만나 인공지능(AI)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했다. (사진=최태원 회장 인스타그램 캡처) photo@newsis.com

*재판매 및 DB 금지

©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